

롯데백화점서 신선 농산물 당일 배송받는다

11년 만에 식품관 '푸드 에비뉴'로 리뉴얼...친환경 전문 매장 확대 화순 도곡농협 위탁운영...입점 상품 100% 실명제 적용 신뢰도 높여 3km² 이내 3만원 이상 무료배송...8일까지 친환경 장바구니·상품권 증정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 1층 식품관을 새단장 하며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100% 생산자 실명제'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개월 동안 지하 1층 개선 공사를 1차적으로 마치고 1750㎡ 규모 식품관을 5일 문 연다고 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진행된 식품관 개선공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품관의 이름은 '푸드 에비뉴'로 지었다. 푸드 에비뉴는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식품관을 말한다.

매장 내부 장식과 상품 진열을 고급화했으며,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선보인다.

1차 선보이는 공간은 로컬푸드 전문관과 슈퍼마켓, 친환경 전문 매장 '올가'이다.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순 도곡농협이 운영한다. 도곡농협이 당일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직접 발굴하고 판매하며, 롯데백화점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과 전남도가 맺은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으로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매장에서는 화순 70여 농가가 생산하는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신선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전남지역 식품명인들의 가공 식품 800여 개 품목도 매대에 오른다. '보성녹돈'과 '장수한우' 등 지역 대표 브랜드가 입점하며 모든 상품은 100% 생산자 실명제가 적용된다.

식품관 슈퍼마켓은 변화되고 있는 소비 경향을 적극 반영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의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곳에서는 기존 150여 개에서 450여 개 보강된 총 600여 가지 품목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 '생활공작소'의 다양한 상품과 반려동물 용품이 새롭게 매대를 채운다.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친환경 전문매장인 '올가'는 면적을 기존보다 약 25% 확장했다.



5일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을 보강해 새롭게 선보이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 <롯데백화점 제공>

프리미엄 청과 매장에서는 원하는 과일을 선택하면 생과일 주스나 조각 과일로 판매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푸드 에비뉴'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당일 무료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선·가공·생필품을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백화점 인근 3km² 이내 거리라면 당일 무료 배송 해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재개장을 기념해 오는 8일

까지 식품 구매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증정한다. 식품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는 갑추지를 선착순 증정하고, 제휴카드로 10만~2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 5% 상당 롯데상품권과 식당가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나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신선한 로컬푸드와 식재료 상품으로 구성된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농산물 브랜드 '빛찬들' 산지유통 종합평가 27위 기록

광주 농산물 브랜드 '빛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83개 단체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빛찬들'은 지난해 73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올해는 100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달 29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2020년 하반기 연합사업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광주지역 원예농산물 판매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에 참여하는 평동·송정·동곡·대촌·본량농협 등 5개 지역 농협 경제상무 및 산지유통관리자가 참석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은 6가지 주요 농산물을 연합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평동 대추방울토마토, 송정 팽팽이까지, 동곡 애호박 및 흑토마토, 대촌 부추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연 평균 50억원 넘는 판매고를 올려왔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73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연합판매 참여 농가는 230가구에 달한다.

농협 광주본부와 연합사업단은 정부가 오는 2024년 추진하는 산지유통혁신조직 육성정책에 발맞춰 조직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지조직 핵심역량조직을 전국에서 70곳 선별해 육성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쌀한 날씨엔 차(茶)

이마트 매출 24.3% 증가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따뜻한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매장의 10월16일~26일 차(茶) 매출은 1년 전보다 24.3% 증가했다.

올해 1월~10월 누계 매출을 분석해보자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8% 올랐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노브랜드 차와 피코크 차 상품도 매출이 각각 53.1%, 12.7% 증가했다.

차 종류별로 보면 '허브차'로 분류되는 카모마일(15.3%), 열그레이(13.1%), 페퍼민트(9.7%)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마트는 밀크티, 레몬·복숭아 허차, 자몽차, 레몬차, 유자차 등 30여 종의 차 상품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체 출시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가정에서 면역력 강화와 심신 안정을 노리기 위한 차 상품을 잇따라 찾았기 때문으로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어느덧 쌀쌀한 바람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며 "국내산 엑상차와 다양한 허브티로 저렴한 가격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피도 스타일 있게~ 4일 (주)광주신세계 직원이 본관 5층에 문을 연 '지오바니' 임시매장에서 20~30대 취향에 맞춘 모피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200만~3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모피 목도리(머플러)를 선착순 증정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세계 입맛 사로잡은 'K-라면' 수출실적 역대 최고치 전망

5년 새 2배...5712억원 넘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라면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 라면 수출액이 지난 달 말 기준(잠정) 5억 달러(5712억원)를 넘었다고 4일 밝혔다.

라면수출 실적은 지난 2015년 2억1900만 달러에서 5년 새 2배 성장했다. 지난 한 해 실적(4억 6700만 달러)도 이미 넘겼다.

aT 측은 이 같은 성과가 미국 아카데미 수상작인 영화 '기생충'의 선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문화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주요 국가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미국(55%), 일본(48%), 중국(30%) 등이 높았다. '한류' 열풍이 뜨거워 태국·대만 등 아세안지역과 중화권에서도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aT는 올해 9월부터 이달 말까지 미국의 유통매장인 '푸드 바자'와 연계해 'K-라면' 특별판촉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미 동부지역 26개 매장이 인기 라면제품과 건면, 볶음면 등 신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개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의령옥씨 상징탑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갑자보(18C4년) ◆ 기묘보(1999년) ◆ 계해보(1863년) ◆ 학사공파(1935년) ◆ 정미보(1907년) ◆ 평장사공파(2012년) ◆ 갑오보(1954년) ◆ 의령옥씨 1500년사 ◆ 병진보(1976년)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 삼중, 옥 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 치 남 010-3550-8912